우리방송 KRADIO AM1230 FM106.3 HD2

미국 한인 이민 역사 123년 만에 한인 대상 전국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한인재단(KAF) 지원받아 미주한인연구소(KAI)가 시행 - 한인 1,466명 설문 참여

2026-10-19 LA우리방송

임소정 SUNY 버팔로 교수가 설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Kradio1230 우리방송

2028년 한인 이민 125주년을 앞두고 미주한인연구소(KAI)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국 설문조사 예비 결과를 10월19일 발표했다.

한인재단(KAF)의 자금 지원을 받아 KAI가 조사기관 BSP 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이번 조사는 올해 2월10일부터 4월1일까지 18세 이상 한인 1466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2.48%포인트다. 응답자의 65%는 영어로, 35%는 한국어로 참여했고, 온라인과 전화 조사가 병행됐다.

이번 설문조사 프로젝트에는 장태한 UC 리버사이드 교수를 비롯해 앤지 정 뉴욕주립대 올버니 교수, 임소정 뉴욕주립대 버펄로 교수, 제리 박 베일로대 교수, 김민정 샌디에고 주립대 교수, 캐롤 최 프린스턴대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이 리포트는 한인사회의 현재를 담은 첫 종합 자료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체성이다. 자신을 설명하는 말로 '한국인'(47%)과 '한국계 미국인'(42%)이라고 답한 비율이 '아시아계 미국인'(28%)과 '미국인'(19%)을 크게 앞섰다. 네 명 중 한 명은 지난 1년간 한국계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고, 10명 중 6명은 백인 특권이 미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세대 간 차이도 뚜렷했다. 결혼한 1세대의 4분의 1이 비한인 배우자를 두었지만, 미국 태생 2세 이상에서는 비한인 배우자가 3분의 2에 달했다. 가족의 타 인종 결혼에 대한 찬성은 상대가 한인일 때 80%, 백인이나 동아시아계일 때 약 60%였지만, 흑인·남아시아계 등에서는 42~46%로 낮아져 한인사회 안의 인종 인식이 일반 미국 사회와 닮아 있음을 보여줬다.

정치 성향에서는 성별과 학력이 변수였다. 2024년 대선에서 등록 유권자의 48%가 해리스, 34%가 트럼프를 지지했고, 18%는 지지 후보가 없었다. 여성은 해리스를 2대 1로 선호했으나 남성은 팽팽히 갈렸다. 학력이 높을수록 진보화된다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대학원 이상 학력자는 진보(34%)와 보수(35%)로 거의 정확히 나뉘었다.

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성별 분업이 남아 있었다. 집안일은 여성의 57%, 남성의 44%가, 육아는 여성 46%, 남성 29%가 주로 책임진다고 답했다. 이 격차는 1.5세와 2세대에서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 형편에서는 미국 태생 세대가 자신이 다른 미국인보다 못하다고 답한 비율(17%)이 이민 1세대(11%)보다 높아 세대 내 경제적 편차가 더 큼을 보여줬다. 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여성 4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건강이 보통 이하라고 답했고,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여성 5명 중 1명, 남성 8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이용률은 미국 태생 2세 이상(19%)이 이민 세대(13~15%)보다 높았다. 또 5명 중 1명은 한국 이주를 진지하게 고려했는데, 이들 중 40% 넘게 건강과 의료를 이유로 꼽았다.

언어생활은 이중적이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일상 생활 중에 영어를 사용하고, 4명 중 3명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답했지만, 정치 뉴스는 절반 넘게 주로 영어로 접했고, 1.5세와 2세대 다수는 영어로만 접했다.

종교 지형도 바뀌고 있다. 개신교는 42%로 더는 과반이 아니며 가톨릭 12%, 불교 10%가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지난 1년간 종교 모임에 참석해, 교회와 사찰이 여전히 사회적 연결망 구실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결과가 한인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첫째, 정치 뉴스를 영어로 접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커뮤니티 정보 전달과 유권자 참여 운동도 이중언어·다매체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정치 성향이 성별과 학력으로 갈리는 이상 '한인표'를 하나로 묶어 보는 시각은 설득력을 잃는다. 셋째, 높은 의료 수요에 비해 이용이 낮은 정신 건강 서비스는 한인 단체와 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2세대 이상은 경제적 격차를 더 크게 체감하고 다인종 한인이 늘고 있어(2세 이상의 약 14%) 세대와 배경이 다른 한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동체의 틀이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모습과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모습을 두고 오늘 발표 현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부류의 한인이 있는 것이 아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번 설문 결과를 보면,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종교에서 기독교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앞서 애기한 대로 50%가 안 된다. 그리고 영적인 마음은 있으나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거의 10%에 육박한다. 한인 교계의 장래가 밝지 않다는 대목이다.

연구진은 이번 예비 결과를 토대로 세부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인사회가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K-Radiok 우리방송